

울산항의 역사

韓 相 復 / 國立水產振興院, 海洋科長 理博

1430년대의 울산항

조선왕조 제4대 왕인 세종 12년이 1430년에 해당한다. 이 당시 울산은 중요한 군사 기지로 선정되어 있었다.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慶尙左道兵馬節度使營)이 1417년(태종 17년)부터 울산에 자리잡았고, 염포에 도만호(都萬戶)가 있었으며 서생포와 개운포에는 만호(萬戶)가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래 부산포에 경상좌도수군도안무처치사가 있었는데 이곳에 병선(兵船) 33척과 수군(水軍) 1,779명이 있었다. 울산 염포에는 염포도만호가 병선 7척과 수군 502명을 거느렸는데 1426년(세종 8년) 부산포에 경상좌수영이 생기면서 염포도만호는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울산의

서생포만호는 병선 20척과 767명의 수군을 거느렸고, 개운포만호는 병선 12척과 수군 420명을 거느렸다. 울산의 수군진지 3개처에서 전체적으로 병선 39척과 수군 1,689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병선과 수군의 숫자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추정하면 어선은 약 80척에 이르고, 어민수는 3,000여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되고 울산만의 각 포구가 자연적인 어항으로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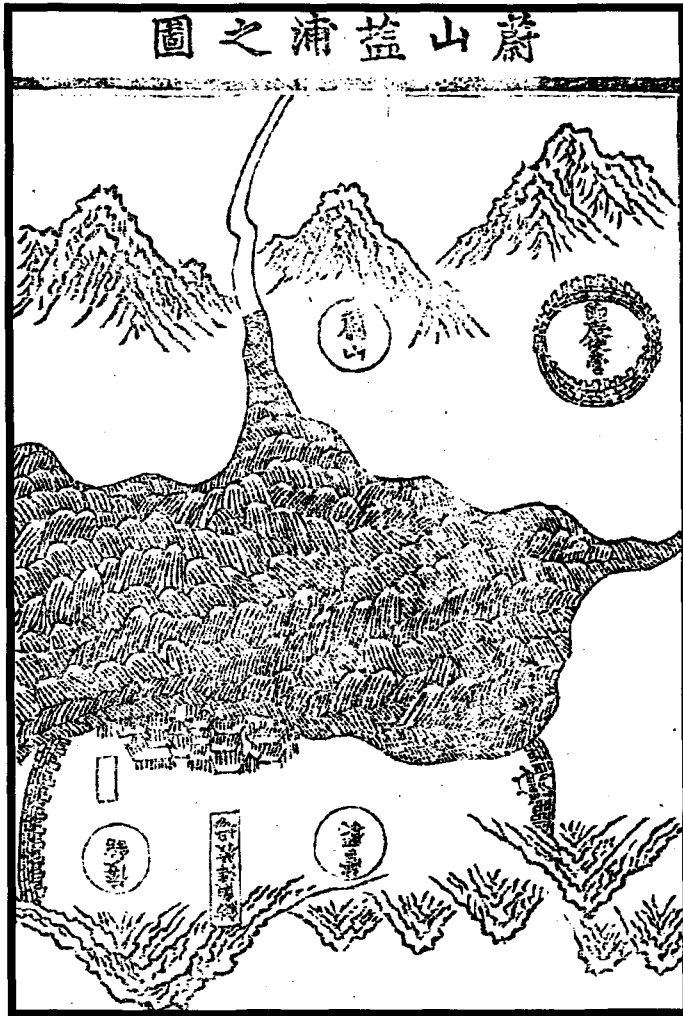
1470년대의 울산항

동래 부산포에 있었던 경상좌수영이 울산 개운포로 옮겨 온 것은 1459년(세조 5년)이었다. 이로부터 1591년(선조 24년) 다시 동래남촌으로 좌수영이 옮겨질 때 까지 132년

간 울산은 경상좌도 수군의 중심지였다.

1471년(성종 2년)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 속의 수군(水軍) 편제를 보면 경상좌도수영인 주진(主鎭)에 17척의 병선이 있었고 서생포에 7척, 염포에 12척으로 울산의 총병선수가 36척에 이르렀다. 울산의 염포에는 1426년 개설된 왜관(倭館)이 있었는데 1510년(중종 5년) 삼포왜란 이후 폐쇄되기까지 84년간 왜인들이 드나들어 제한적이거나 국제무역항의 역할이 이루어 지기도 했다.

1474년(성종 5년) 예조좌랑의 관직에 있던 남계(南楸)가 왜인들이 거주하는 왜관에 와서 작성한 지도가 <그림 1>에 보이는 「울산염포지도(蔚山鹽浦之圖)」인데 이 지도는 울산항 연구에 가장 최초의



〈그림 1〉 1474년 작성된 울산염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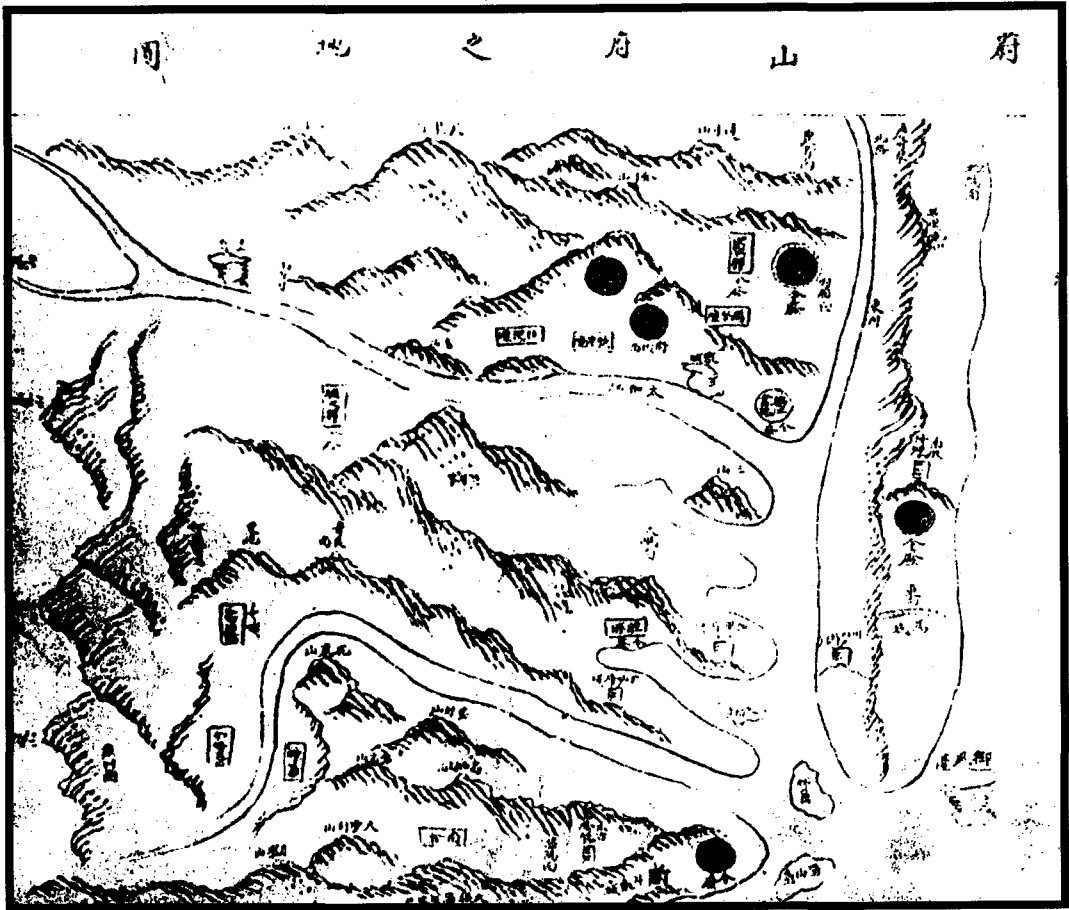
목판본으로 중요성을 간직하고 있다. 서쪽이 위로 그려진 유별난 지도로 울산 북쪽에 절도사영이 있고, 울산만 건너편에 영청 방어진목장 왜관 등이 있으며, 왜관 앞 해안에는 왜인들의 거소(居所)도 나타나 있다. 당시 염포에 거주했던 왜인은 36가구에 131명

이었고 사원도 1개소 있었다. 남제는 울산에서 염포까지의 거리를 30리라고 적어 놓았다. 그림에 나오는 절도사영(節度使營)은 경상좌도절도사영으로 경상좌도 육군의 중심지이며 간단히 병영(兵營)이라고도 했으며 지금도 이 이름은 지명(地名)에 전해 내려

오고 있다. 영청은 염포영청을 의미하며 왜관은 염포영청에서 관리했다.

1740년대의 울산항

임진란 이후 1599년(선조 32년)부터 울산은 의병(義兵)들의 공로에 힘입어 군(郡)에서 부(府)로 승격되었고 경상좌병사가 울산부사를 겸직토록 하였다.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1748년(영조 24년)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 1740년대의 울산항 모습을 볼 수 있는 기록이 나오는데, 울산에 4척의 병선이 배치되었고, 개운포와 서생포에도 각기 4척의 병선이 있어서 울산 연안에는 총 12척의 병선이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들 기록은 1808년(순조 8년)에 편수된 「만기요람(萬機要覽)」에 나타난 것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림 2〉는 1786년(정조 10년) 간행된 「蔚山부지지도(蔚山府之地圖)」를 1899년(광무 3년)에 필사한 것인데 1740년대의 울산항을 비교적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지도는 육지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병선이 있었던 포구(浦口)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물론 울산부에 염포와 개운포 서생포가



〈그림 2〉 1786년 간행된 울산부지도

있었지만 옛날처럼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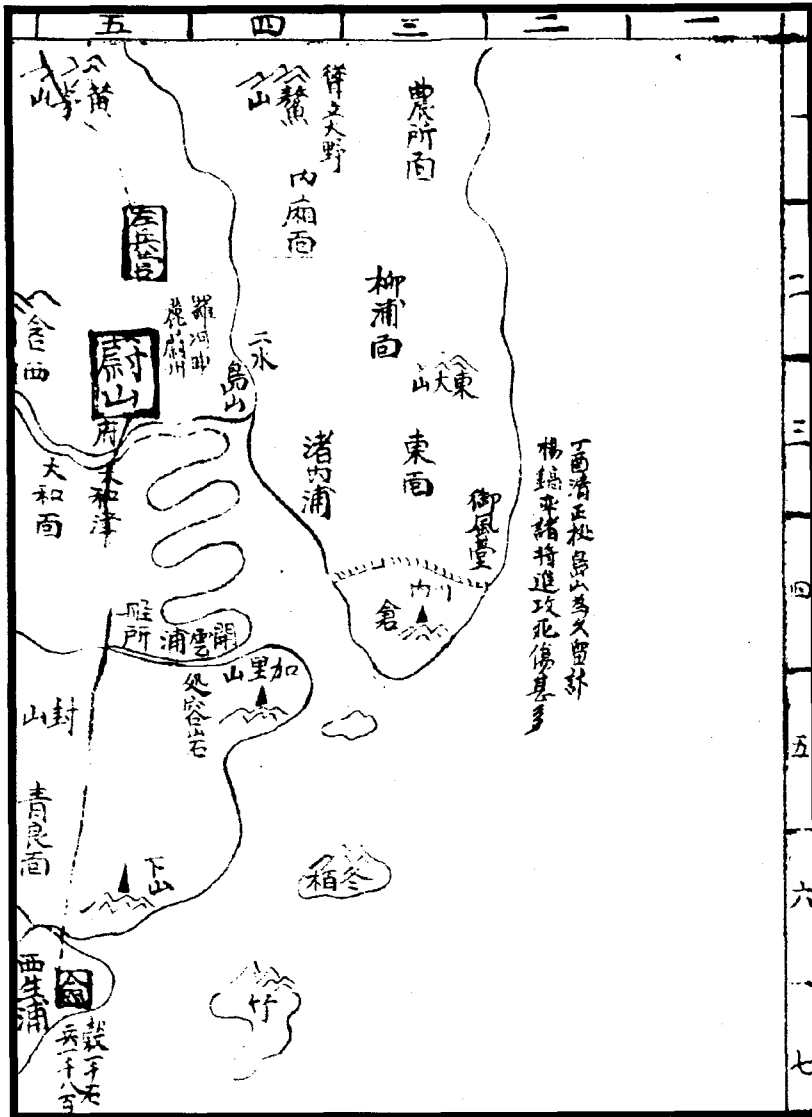
개운포에는 배를 만드는 선소(船所)가 있어서 울산지방에서 소요되는 각종 관선(官船)을 1656년(효종 7년)부터 제작하기 시작했다.

1840년대의 울산항

조선조 헌종때가 1840년대

에 속하는데 이 때의 울산항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림 3〉에 있는 「청구도(靑丘圖)」속의 울산만 부근 지도이다. 청구도는 김정호가 1834년(순조 34년)에 제작한 지도 첩인데 1835년이 헌종 원년이기에 이것이 헌종대를 대표하는 지도라 해도 된다. 그리고 김정호가 1861년 간행한 대동여지도 속의 울산 부분도 〈그림 4〉에 실어 놓았는데 이것도 1840년대의 울산항을 보여 준다.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이지만 「청구도」는 출판이 안 되어 널리 알려지지 못했고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널리 이용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청구도 부록에 있는 군국총목표(軍國總目表)에는 당시 울산부의 인구가 32,900명의



〈그림 3〉 1834년 제작된 청구도의 울산부분

로 나온다. 청구도의 22층 6판의 일부가 〈그림 3〉인데 지도의 테두리에 10리를 단위로 표시하고 있다. 10리를 2.5cm 되게 했고 당시의 10리는 5km에 해당하므로 청구도의 축척이 20만분의 1이 된다. 개운

포 안쪽에 배 짓는 선소가 있으며 서생포에는 수군병사가 1,800명이 있다고 하여 이 때에는 서생포 첨사가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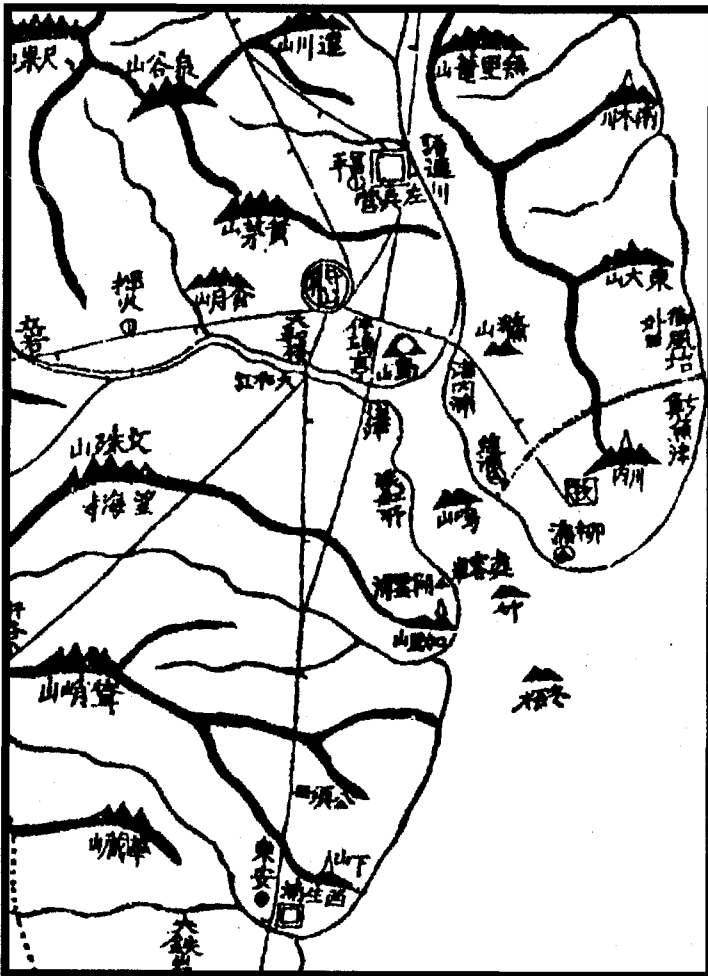
〈그림 4〉의 울산부분은 대

동여지도 18첩 1편에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청구도의 것과 비슷하다. 단지 축척을 도로에 10리마다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약간 다를 뿐인데 대동여지도의 축척도 20만분의 1이다. 여기에는 방어진 유포 염포 개운포 서생포등이 모두 나오지만 서생포가 가장 중요한 곳으로 표시되고 있음은 청구도와 같다. 울산만에 있는 섬으로 명산도 죽도 동백도가 안쪽에서부터 차례로 나타나 있다. 물론 이 때는 울산만이라는 이름도 없었고 울산은 울산부의 중심지인 땅을 중심으로 불리워진 이름이다. 개운포는 울산의 개운포에 불과했다. 이는 동래의 부산포나 인천의 제물포 경우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포구에는 어선이 있었고, 어선이 정박하는 곳이 바로 어항이었

다. 당시의 어항은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자연항이기도 했다.

「티크메네프」라는 별칭

울산의 외곽 울기등대가 서



〈그림 4〉 1861년 출판된 대동여지도의 울산부분

있는 곳이 「티크메네프 (Tikhmeneff)곶」이라고 서양식 별칭이 생긴 것은 「뿌치아친(Putiatin)」이 「팔라다(Pallada)」호를 이끌고 1854년 5월 이곳을 지나가면서 붙인 것에 기인한다. 이 무렵 이곳은 고래잡이 어선들이 가끔씩 찾아들게 되었으며 울산만도 「티크메네프만」으로

불려지곤 했으나 울산만 전체가 해도로 작성되지는 못했다. 1891년 러시아인 「게크(Gek)」가 울산항에 들어와서 해안선을 약측한 것이 있는데 이 해도는 이듬해인 1892년 일본수로부에 의해 「울산항(蔚山港)」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게크」가 그린 원도면에 어떤 명칭이 사용되었

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못했지만 그가 러시아 포경선단의 일행이었으므로 「티크메네프항」이라는 명칭을 썼을 가능성은 크다.

「콤메모레이션」이라는 별칭

울산만을 「콤메모레이션 베이(Commemoration Bay)」라고도 한 적이 있었다. 앞서 소개한 「티크메네프」보다 늦게 나온 별칭이지만 1900년대 전후에 가끔 나타나는 명칭이다. 울산만이 영어로 「울산베이(Ulsan Bay)」라고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쓰여지던 명칭이니 옛날 문헌을 살필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콤메모레이션(Commemoration)」은 「기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서양인이 별칭으로 부른 고유 명사이니 뜻을 따르지 말고 음을 따라서 불러야 한다.

1905년까지 조사된 해양자료를 종합하여 일본해군수부에서 1906년 9월 26일 해도번호 제305호로 발행한 「부산항에서 죽변만」까지의 해도 중에서 울산만 부근만 나타낸 것이 〈그림 5〉와 같은데 이곳에서도 울산의 별칭을 「콤메모레이션 베이」로 쓰고 있다. 이 때는 울기등대가 이미 건

설되어 매 10초마다
섬광을 번쩍이며 18
해리까지 볼 수 있어
서 항해안전에 한 몫
을 하고 있었다. 수심
의 단위는 패덤인데
10패덤은 18m의 깊
이에 해당한다.

1900년대의 울산항

1895년(고종 32년)
울산부는 행정직제 개
정으로 울산군으로 되
었고 이듬해인 1896
년 경상남도 울산군이
되었다. 옛날의 수군
만호영은 혁파되어 버
리고 장생포가 고래잡
이의 기지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1900년대
의 울산항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는 1899년 측량된 울산항 해
도가 <그림 6>에서와 같이 울
산만 안에 정치망이 여러 곳
에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한
산한 어항이었다. 당시 울산
군에는 정치망이 60여곳 있었
고 어선 수는 약 200척에 달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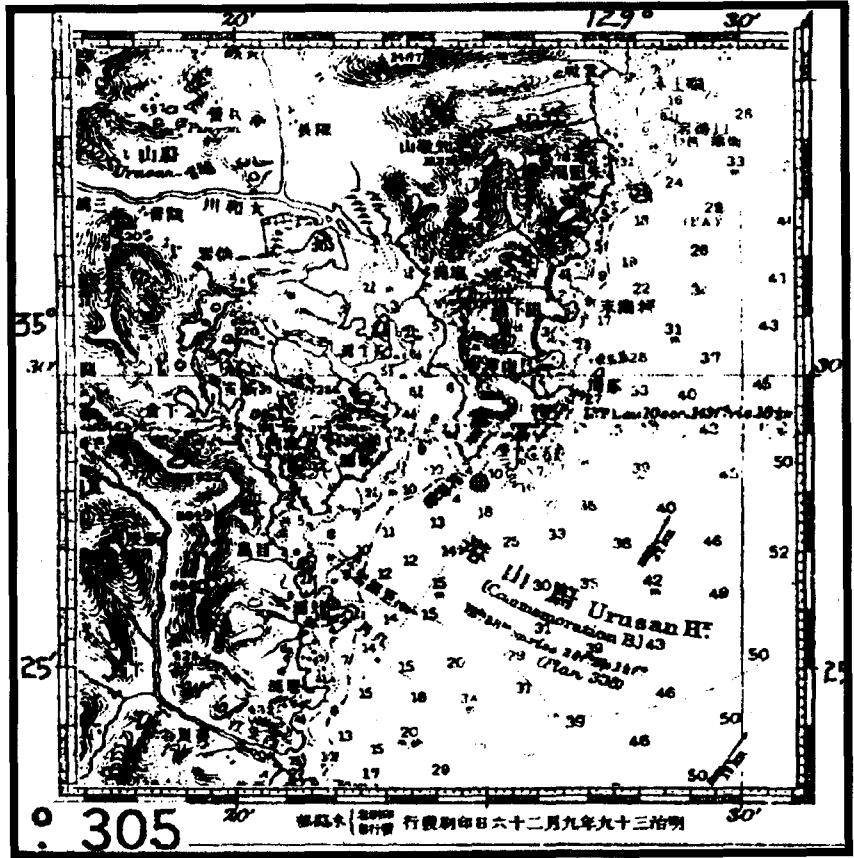
미포(尾浦)에는 70여호의
어민들이 살았고 어선이 17척
이나 되었다. 일산진(日山津)
에도 28호의 어민들이 10척의

어선을 가지고 있었다. 방어
진(方魚津)에는 일본어민들이
주된 세력을 이루게 되었으
며, 염포는 20여호가 사는 조
그만 어촌으로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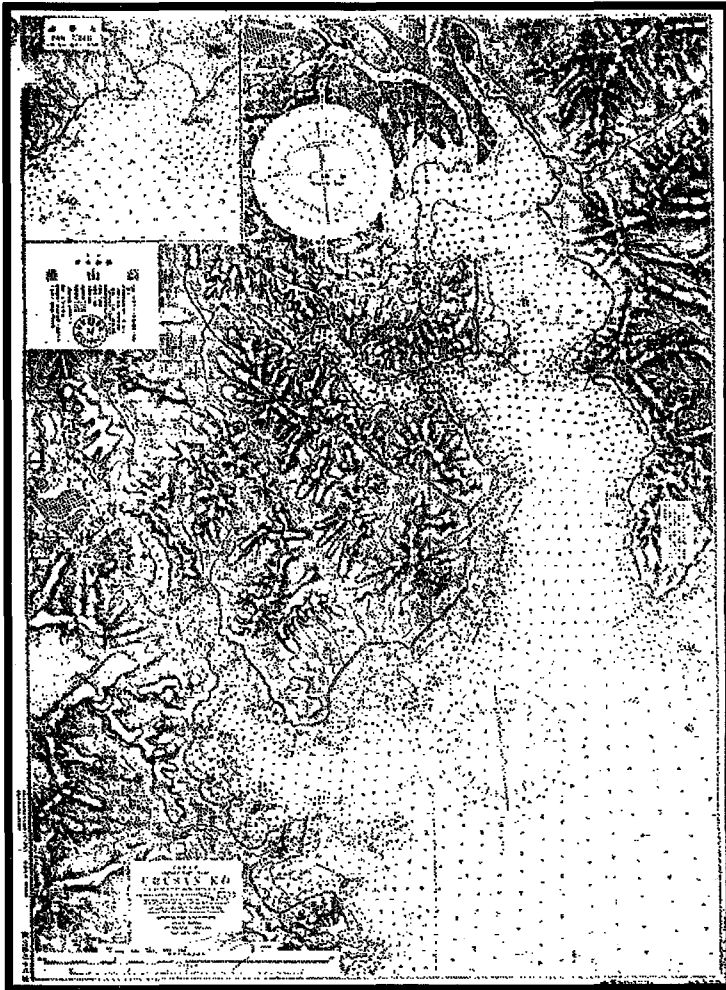
장생포(長生浦)는 구정동
(九井洞) 또는 장승포(長承
浦)라 했는데 78호의 주민이
살았고 어민수는 작아서 어선
4척에 어장(魚帳) 1곳이 있었
다. 일본인이 경영하는 동양
포경주식회사의 사업장이 두

곳이나 있어 포경선과 운반선
의 왕래가 잦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울산만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 부산세관감시
소가 있었고 부산까지의 정기
항로도 개설되었다.

목도(目島)에는 19호의 어
민이 있었고 달포(達浦)에 36
호의 어민과 14척의 어선이
있었다. 이진(梨津)에도 26호
의 어민이 살았고 6척의 어선
이 있었다. 여기에 적은 어촌



<그림 5> 울산이 「콤메모레이션」이란 별칭으로 표시된 해도



〈그림 6〉 1899년 측량된 울산항(1918년 출판)

의 호수와 어선수는 1910년 출판된 「한국 수산지 제2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방어진어항의 건설

방어진은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일본 어부들이 모여드는 근거지가 되었으며, 1910

년 공사비 6,000원을 들여 방파제 90m를 축조한 일이 있었다. 성어기에는 1,300여척의 어선이 몰려드는 데다, 앞이 확 트인 바다로 인해서 우선 튼튼한 방파제를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1923년부터 1927년 까지 총 공사비 755,000원을 들여 방파제 길

이를 277m로 축조하는 공사를 벌여 어선의 안전에 도움을 주었다.

1917년 당시 울산읍내에는 한국인이 1,047호에 5,397명이 거주했고, 일본인은 127호 480명이 거주했는데, 방어진에서는 한국인이 164호 689명인데 비해 일본인은 301호 1,269명이나 되어서 방어진 인구는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두배나 많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장생포에서는 한국인이 498명, 일본인이 417명 살고 있었던 것도 참고할만하다.

방어진은 기본적으로 어항이지만 부산과 장생포의 연안항로중 반드시 거쳐가는 중간기착지였고, 1931년 울산면이 울산읍으로 승격되고난 뒤 1934년 방어진이 방어진읍으로 승격되었다.

부산-장생포간 정기여객선은 조선기선주식회사에서 운행했는데 중간 기착점이 방어진 외에 목도가 있었다.

방어진항의 60년전 모습이 〈그림 7〉에 있는데 이것은 일본해군이 1934년 측량하고 1935년 발행한 해도 「울산만」의 일부에 해당한다. 방어진은 울산만 외곽에 있는 전형적인 어항이었고 장생포는 울산만 안에 있는 어항겸 상항

이었지만 울산 주민들에게는 장생포가 울산항이나 다름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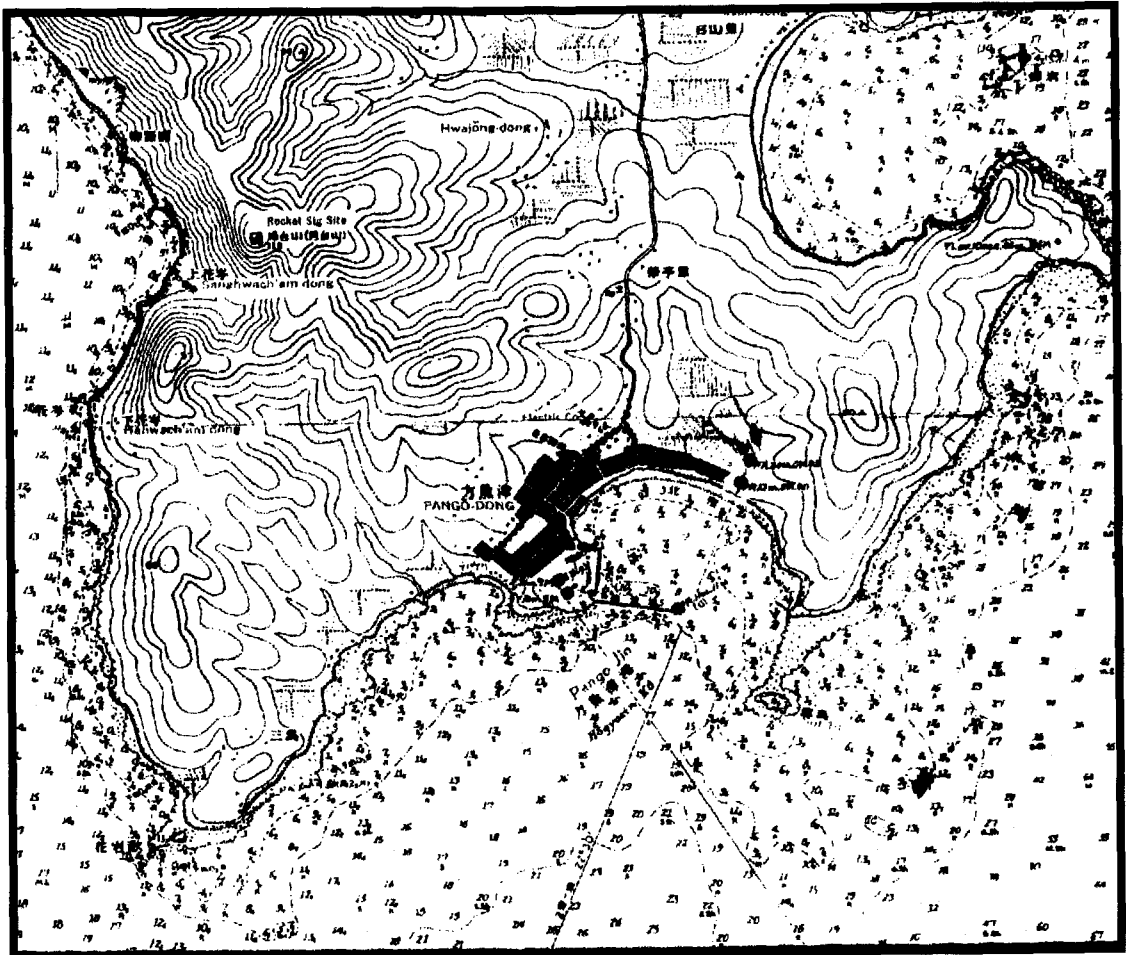
울산항의 건설

울산만에는 장생포와 방어진은 있어도 울산항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1941년이 되어 서야 울산항 축항계획사업이

조선축항주식회사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지금의 울산항과 같은 자리였다. 1944년에는 조선석유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정유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다가 1945년 울산항과 정유공장의 건설이 중단되었다.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 1962년 1월 27일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선포되고

5월 20일에는 울산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63년 9월 25일 울산항이 개항장으로 지정되면서 울산항 건설이 재개되어 오늘날의 울산항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1997년부터는 울산신항 건설이 시작되어 2001년 완공될 예정에 있기도 하다. ⁴⁾



〈그림 7〉 1934년의 방어진항